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 사회 문제점과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고용환 · 박시균\*\*  
(군산대학교)

1. 연구 목적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가정 및 자녀
  - 2.2.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 2.3.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
  - 3.1. 연구 참여자 선정
  - 3.2. 연구 참여자 모집과 자료수집 과정
4.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 경험 분석
  - 4.1. 성장환경과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인식
  - 4.2. 학교 및 사회생활 경험
  - 4.3.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바라는 한국 사회
5. 결론 및 제언

\* 본 논문은 고용환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임.

\*\* 제1저자 : 고용환, 교신저자 : 박시균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차별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된 질적연구 논문이다. 한국에서 성장한 20대 중반 다문화가정 자녀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가정환경과 학교 및 사회 경험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정불화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학교 재학 시에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따돌림과 놀림을 받고,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적응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었으며, 외국인 어머니에 연민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도출된 현상은 지금까지 추진된 다문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하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긍정적이지 않은 사회적 인식으로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차별과 편견, 질적연구

## 1. 연구 목적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수 조사를 시행한 2006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221만 6,612명<sup>1)</sup>이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3%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2021). 그리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2%로(13,926건) 집계되었으며, 다문화가정의 출생 비중은 5.5%로 2011년 4.7%에서 0.8%p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 사회는 낮은 출산율<sup>2)</sup>과 MZ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sup>3)</sup> 등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와 관련하여 198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발단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

1) 유형별 현황은 한국국적 미취득자(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는 177만 8,918명, 한국국적 취득자 18만 5,728명,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25만 1,966명이다(행정안전부 2021).

2) 시도별 합계 출산율 가입여성 1명당 0.78명이다(인구동향조사 2022).

3) '결혼 안 해'가 뉴노멀...25~49세 남성 절반이 미혼(서울와이어 2023).

회에 유입되기 시작했고(조정숙 2023: 176), 현재 1세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중요한 점은 2019년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수를 보면 미취학아동(45.2%), 초등학생(39.3%), 중고등학생(15.4%)으로 집계되었는데(행정안전부 2019), 이는 앞으로 급격하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년기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문화라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 받고 있으며, 학창 시절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고 있다(이수민 외 2021: 777). 또한 차가운 시선과 불편한 경험 때문에 소극적 대인관계와 단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용환 2022: 58).

하지만 관심의 시선보다는 한국인에서 배제(exclusion)당하고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집단따돌림은 2018년 33.4%에서 2021년 49.1%로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한 차별에 관한 연구는 특히 부족하다(김재훈 외 2022: 842).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20대 중반의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의 남성 자녀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경험한 가정환경, 학교와 사회 경험, 이와 관련된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점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슷한 연령대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태어난 자녀들로서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교와 사회 활동을 하였으며, 모두 군(軍)에 입대하여 병사로 복무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취학 이전 어떤 경험을 했는가?
-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와 사회 경험은 어떠한가?
-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바라는 한국 사회는 무엇인가?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 경험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가정 및 자녀

2003년도 건강시민연대가 주최한 「세계가정의 해 10주년 행사」에서 건강한 한국의 가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용어라고 하며,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혼혈아’를 ‘다문화가족 2세’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용어가 다시 정립되기 시작했다(조정숙 2023: 181). 그리고 2008년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의거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고 규정했으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2007),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2008) 등 교육인적자원부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구본규 2015: 13). 이러한 용어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로 지칭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출생 건수 중 다문화가정 출생아 비중은 2015년 4.5%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6%로 집계되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5.5%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그리고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은 베트남(35.7%), 중국(16.8%), 필리핀(5.2%) 순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유형별 혼인은 외국인 아내(62.1%), 외국인 남편(22%), 귀화자(16%)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를 외국인으로 둔 가정의 비율이 높으며, 출신 국가는 동남아시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1)’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은 여성(1.8%)보다 남성(2.7%)이 많이 경험했으며, 9세에서 11세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집단따돌림(49.1%), 말로 하는 헐박(43.7%)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사실은 집단따돌림은 2018년에 33.4%였으나, 2021년에는 49.1%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반 한국 학생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러시아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다문화 가정 자녀이자, 한부모 가정 자녀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놀림을 받아왔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 가족사를 약점으로 잡고 차별과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B군(14)에게 손과 발 등으로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하였고, 옥상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뉴스워커 2018).<sup>4)</sup>

위 ‘인천 다문화가정 학생 추락사고’는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출생 배경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학교에서조차 다문화가정 자녀를 사회적 약자로 취급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괴롭힘과 따돌림에 노출되어 학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으로 비춰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진영(2019: 718)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격지심이 있는데,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본

4) 뉴스워커(2018. 11. 19). 인천 다문화가정 학생 추락사고...차별과 학교폭력 사각지대 놓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 현실 일깨웠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40>.

인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적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업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언어 문제와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그냥 다니기 싫다(54.5%)’라고 답변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10.6%)’, ‘편·입학 및 유학 준비(9.4%)’,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8.3%)’ 순으로 집계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차별 경험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였고, 학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국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2.2.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한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일민족의 우월성과 신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화적 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 소홀했다. 또한 한국인의 강력한 동질 의식은 ‘다른 것 = 틀린 것’이라는 가치가 민족성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족의 특성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걸림돌이 되었고, 국제사회에도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현대 한국 사회의 다 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sup>5)</sup>하였다(김비환 2007: 319).

이처럼 뿌리 깊게 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민족성은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들에게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아닌 동화주의(assimilation)를 강요하는 문화적 행동으로 정착되었다.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하여 이동구(2017: 15~16)는 주한미군과 함께 거주했던 기지촌 내의 미혼모들에게서 태어났던 ‘미군 혼혈인’

5)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7).

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게 되었고, 당시 미혼모들은 대부분 윤락여성이었기 때문에, 도덕적 질타와 함께 단일민족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문화가정 및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윤인진(2008: 73)은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가 여전히 존재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의사소통 문제, 경제문제, 문화적 충격 등 사회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08년 제정하고, 2011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범위를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민<sup>6)</sup> 가정’으로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혼란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은 심각한 상황이다(김희재 2015: 10).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정숙(2023: 189)은 결혼이주여성 17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하였는데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인의 범주에서 다문화가족으로 분리하여 배제했으며, 빈곤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차별적 시선으로 대우하였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류되고 있으며,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한국 아이들보다 못할 것이라는 편견과 일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조차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사회적 문제집단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조정숙 2023: 207)

6) 2005년부터 사용한 ‘새터민’ 용어는 모든 탈북민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되었다(시사경제용어사전). 여기서는 여성가족부(2011)가 쓴 용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며, 차별적 행위에 대한 인지조차 부족하여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 2.3. 선행연구 분석

본 절을 통해 최근 연구 중 사례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연관성이 깊은 선행연구의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및 자녀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관한 양적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험과 정체성, 가치관, 관점 등을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질적 연구로 김재훈 외(2022: 852)는 국내 출생 및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12명을 대상으로 차별 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과 무엇인가 다를 거라는 인식과 외국 부모와 자신들을 동일시(equate)하는 시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접하였고, 다문화 배경이 공개되면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가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켰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에 대해 최대회(2018: 53)는 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존재로 표현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차별과 배제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에 따른 불안정한 정체성 형성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하는 과정에서 불안, 갈등, 우울, 분노 등의 감정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부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별도의 과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이중고(double torture)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송진영 2019: 702).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 어머니(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반영한 연구(조정숙 2023)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눈치가 보일 때가 있다. 일반 한국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겪지 않을 일을 자신(외국인 어머니) 때문에 경험하고 있어.(중략) 잘못된 것은 없지만 자신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가족들을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중략) 자녀들까지 동남아인 취급할 줄 몰랐다.”(조정숙 2023: 참여자M)

“외모 상으로 한국 아이처럼 생겼다.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은 엄마가 외국인지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엄마가 외국인인 사람 다 모여라, 다문화 다 모이라고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원숭이가 된 거 같았다고 짜증을 냈다고 한다.(중략) 친구들도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조정숙 2023: 참여자E)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차별 없이 성장하기 위해 용어의 재정립도 필요하며,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녀까지 외국인 취급하는 인식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는 행위이며, 사회통합에도 저해가 된다고 주장했다(조정숙 2023: 209).

또한, 박시균 외(2021: 37~39)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향이 심하며, 한국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부부 사이 갈등과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되고 사회약자로 취급받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숙한 한국 사회의 구현과 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험과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 즉 질적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인식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다각적인 접근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와 과정을 분석하여 해석과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안진숙 2023: 85). 그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 원인을 밝히고 경험 해석을 통한 분석을 위해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 3.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자녀로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자녀 중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1997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하여,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후 정책이 이행되는 비슷한 시기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학창 시절을 거쳤으며, 2009년 병역법 개정<sup>7)</sup> 후 다문화 병사로 군대에 입대하여 학교 이외의 사회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적 요소를 반영하여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남성으로 선정하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5명이며, 평균 연령은 24.2세이고, 성별은 전원 남성이고 미혼이다.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는 필리핀 2명, 일본 2명, 태국 1명이며, 참여자 모두 병사로 복무했으며, 직장 경험을 가진 참여자는 1명이었다. 외국 부모 국가 거주 경험자는 2명이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참여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7)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 1. 29. 개정).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성별	학력	사회 경험	외국인 부모 출생국가	한국인 부모	비고
1	25세	남	고졸	군대	필리핀	아버지	이혼
2	23세	남	대재	군대	필리핀	아버지	이혼
3	26세	남	고졸	직장/군대	일본	아버지	.
4	23세	남	대재	군대	태국	아버지	태국2년
5 <sup>8)</sup>	24세	남	대재	군대	일본(재혼)	어머니	일본4년

### 3.2. 연구 참여자 모집과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최초 세평적 사례 선택(reputaion case selection)<sup>9)</sup>으로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이후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3명을 1차로 선정하였으며, 심층 면담 진행과 관련하여 추가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1차 선정자들의 지인 2명을 소개받아 최종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면담 진행 전 연구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관한 개인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노출이 가능한 전사 자료는 기호로 표기하였으며, 비밀 유지에 관해 연구 참여자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다문화 전공 교수 1명과 전문상담사 1급(수련감독자) 1명에게 피드백을 받아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 진행을 위해 필자 중 일인의 다문화 배경<sup>10)</sup>을 공개하고 공감대를

8) 연구 참여자5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모친의 재혼으로 다문화가정이 되었다. 그로 인해 일반 한국인과 외적인 차이점은 당연히 없으나, 어린 시절부터 외국인 아버지(계부)와 함께 거주하며, 학교 및 사회(군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었기에 연구목적에 부합하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9) 특정 분야 및 직위에서 장시간 근무했던 경험자를 대상으로 소개받아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19년간 군에서 복무하면서 맺은 인연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참여자를 최초 모집했다.

10) 필자 중 1인은 2016년 외국인(캐나다) 아내와 혼인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며 다문화

형성하여 자료수집에 임하였다.

참여자 개인별 면담 시간은 60분~90분이었으며, 추가 질문을 포함하여 평균 80분의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초 연구에서 1차 면담 기간은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까지이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 사례확보 및 질문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유선 통화 및 영상통화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개인 동의를 구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축어록(verbatim record)을 기록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분석 방법으로 분석했으며, 다문화 자녀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정독(精讀)하며 유형화를 통해 분류하고 분석과 해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문화 학과 전공 교수 1명과 전문 상담사(수련감독자) 1명의 확인 과정을 진행했으며, 타당도 확보를 위해 다문화 학과 동료 연구자들의 검증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 4.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 경험 분석

### 4.1. 성장환경과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인식

#### 4.1.1. 불안한 유년 시절의 경험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다툼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가족해체 경험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부모님 이혼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죠. 사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저는 크게 피해 본 것이 없지만 아버지는 엄마가 말도 못 알아듣고 하나까(중략)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걸

---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이다.

자주 봤어요. 특히 아빠가 술 먹고 오면 가끔 엄마를 폭행해서 많이 무서웠죠. 같이 울기도 하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정말 심하게 엄마를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며칠 동안 혼자 도망갔는데 그때 혹시 동생과 저를 버릴까 봐 기다리면서 무서웠어요. 다행히도 며칠 후 왔고 그날 저희를 급하게 데리고 ○○○로 이사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망간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와 이혼했어요. 어린 나이로 갑작스러운 이사랑 이혼이 좀 놀라고 힘들었는데 엄마 표정도 밝아지고 무서운 아빠도 없어서 그냥 좋았던 거 같아요.”(참여자1)

“이혼 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아빠가 정말 많이 답답해했어요. 가끔 제가 있는 곳에서도 엄마한테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중략) 많이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불편하고 엄마가 불쌍했어요.”(참여자2)

“일 끝나고 집에 온 아빠가 엄마랑 이야기할 때 엄마가 동문서답하거나 대화가 잘 안되면 아빠가 한숨 쉬고 그랬어요.(중략) 종종 말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봤는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참여자4)

면담에서 부모 싸움의 갈등 요인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적 행동에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어머니에 대해 불쌍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린 시절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표현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아버지가 답답해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한 폭력적 행동의 결과로, 어머니의 가출을 염려하며 홀로 남을지 모른다는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러한 성장 과정의 경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옆을 끝까지 지켜 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강한 연민의 감정을 갖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4.1.2. 외국인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

참여자들은 자신을 양육하며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바탕으로 외국인 어머니에 관한 불쾌한 발언

에 대해 대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어머니 출생 국가에 대한 농담이나 불쾌한 발언을 본인의 일로 여기고 다소 공격적인 반응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사로 생활할 때 생활관에서 필리핀에 대해 불쾌한 발언을 막 하더라고요.(중략) 선임 중 한 명이 이야기하면서 코피노가 불쌍하다 등 듣기 싫은 이야기를 생각 없이 해서요. 단호하게 선임 앞에서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다문화 자녀인 걸 다 몰라서 선임이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해서(중략) 우리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서 기분 나빴다고 했어요. 아마도 민감했던 이유가 엄마가 태어난 나라고 몇 번 가봐서 그런지 마치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참여자1)

“성인 돼서 아르바이트할 때 다른 동료들이 일본에 대해서 나쁜 발언을 했어요. 뭐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 나라를 욕하는 게 듣기 거부해서 자리를 말없이 피했어요. (중략) 있잖아요. 그냥 일본을 욕하는데 엄마를 욕하는 거 같은 그런 기분 비슷한거요.”(참여자3)

주목할 점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의 문화를 가진 군대에서 선임병이 던진 농담에 강하게 대응했다는 점이다. 어머니를 직접 욕하지는 않았지만 모(母)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 이에 대응하여 감춰왔던 다문화 배경까지 공개하는 선택을 하였다. 또 다른 대응 방법으로는 회피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동시에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도 강하게 느끼며, 편견에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4.1.3. 한국어 습득을 강요받은 어린 시절

참여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한국어 습득을 강요받았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돼서도 이중언어(bilingual)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한국어로만 의사소통하였다. 또한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며 오랜 시간 한국어 학습을 했음에도 상호 간에 완벽한 의사소통이 제한될 시 답답

함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타국에서 모어(母語)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언어 전달자 역할을 자청(volunteer)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장 아쉬운 게 이혼하기 전 친할머니가 엄마한테 저한테 영어를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한국어로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서 영어 발음도 이상하다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게 좋다고 못쓰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영어를 정말 잘했을 거 같아서 아쉽죠.(중략)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할머니가 엄마 영어를 무시하고 쓰지 말라고 한 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남들은 돈 내고 필리핀 화상영어로 배우는데.”(참여자1)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랑 대화는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엄마 영향으로 일본어 듣기와 몇 문장 정도는 할 수 있죠. 엄마는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어 실력은 유창해요. 그런데 아직도 가끔 대화 중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잘 알아듣지 못해서 설명을 다시 해줄 때도 있어요.(중략) 차라리 제가 일본어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엄마도 힘들테니까요.”(참여자3)

“다들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커야 하니 한국말부터 먼저 잘해야 한다고 항상 친척들이랑 아버지가 말해서 엄마와 한국어로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볼 때 엄마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중략) 나중에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아빠나 동생에게 전달하는 뭐 중간자 역할을 했던 거 같아요. 동생이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랑 이야기하면 답답해해서 대화를 많이 안 해요.(중략) 엄마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문과로 진로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태국어 학과로 갔어요. 뭐 태국어를 배워서 엄마의 모국어로 같이 대화하고 싶었어요.(중략) 입대 전까지 학교 다니면서 엄마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엄마한테 태국어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좋아해요.”(참여자4)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일원(member)이 되기 위해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억압당하고 살아온 외국인 어머니를 동정(compassion)함과 동

시에 강한 존경심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외국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중언어 습득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성인이 되어 아쉬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성장 경험으로 혈통주의적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과 원망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어머니와의 유대관계 형성과 배움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태국어 학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도전과 노력을 하였다.

#### 4.1.4.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와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당당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외국인 어머니를 존경하고 영웅처럼 여기고 있었다. 특히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봉사나 도움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죠.(중략) 현재 다문화 센터에서 일해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를 돕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가서 통역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요.(중략) 엄마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죠. 훌륭해요.”(참여자1)

“우리 형제가 다 엄마는 정말 바쁘게 지내요.(중략) 결혼 전 태국에서 똑똑했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여러 분야에 엄마는 관심이 많았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알려주고 가정 문제로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법원 일도 도와줘요. 저보다 더 바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보기 좋아요.(중략) 다문화 배경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건 엄마의 당당한 모습 때문인 거 같아요.”(참여자4)

외국인 어머니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감추고 싶었던 다문화 배경의 자녀에서 자랑스러운 다문화가정 자녀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진 좋지 않은 다문화 인식이 자녀들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외국인 부모의 성공적

인 정착과 사회적 역할은 가족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는 쪽으로 바뀔을 보여주었다.

## 4.2. 학교 및 사회생활 경험

### 4.2.1. 독특한 외모에 대한 자각과 타인으로부터의 차별 경험

성장 과정에서 다문화 자녀들은 한국인과 다르게 생긴 외모는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차별적 경험을 받은 것에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외모 평가에 대한 대처법으로 다문화 배경을 공개하거나 때로는 감추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국적으로 생겼다는 말을 학교 다닐 때도, 군대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중략) 나중에는 그냥 혼혈인이라고 바로 공개했죠. 성인이 되고 초면부터 공개하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참여자1)

“학교 다문화 모임에서 알게 된 다문화 학생 중에 일반 학생들에게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중략) 대부분 그런 친구들 외모가 혼혈 느낌이 강했어요. 딱 봐도 한국 사람 아니다. 그래서 놀림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외모가 한국 사람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참여자2)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외모나 분위기가 한국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뭐 약간 특이하다는 식으로요. 지금은 괜찮은데 어릴 때는 신경이 쓰였던 거 같아요.”(참여자3)

“어릴 때 다문화 가정 자녀라서 차별을 받거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저는 외모가 보통 한국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겠죠.”(참여자4)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우연히 새아버지가 일본 사람인 것을 알고 단지 그 이유로 저를 멀리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문화 배경을 숨겼

던 거 같아요. 일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중략) 억울하기는 했어요. 분명 저는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중략). 그래서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요.”(참여자5)

중요한 점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바라본 외모에 대한 인식이다. 서구적이거나 독특한 외모를 가지면 친구들과 사이에서 따돌림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반대로 다문화 자녀지만 외적으로 한국인과 크게 구별되지 않으면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안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외모가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놀림 받았던 것은 강조했다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괜찮다고 표현한 것은 민감한 청소년기에 경험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상처가 더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학창시절 또래 집단과의 관계는 성인이 된 이후 경험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된 참여자5는 계부(stepfather)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친한 친구에게 외면당했다. 이처럼 잘못된 다문화 인식과 편견 때문에 억울함을 경험한 후, 관계를 단절하고 다문화 배경을 철저히 숨기는 선택을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 하나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꼬리표를 달고 이방인(stranger)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 4.2.2. 차별과 배제로 인식되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참여자들은 학창 시절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학교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 원치 않는 전학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또한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정은 모두 가난하고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의 결과로 학교에서 선생님의 공개적 발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부모의 국적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으며 이를 감수해야 했다.

“사실 저는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차별받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학교에서 다문화라서 우리 형제가 차별받을까 봐 언제나 걱정했어요.(중략) 친동생이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다문화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했나봐요. 그래서인지 학교생활이 저는 괜찮았는데 엄마가 부탁해서 동생과 함께 다른 학교로 같이 전학 갔어요.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많이 걱정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죠.”(참여자1)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특별 활동비를 면제해 줬는데, 다른 학생들은 모두 돈을 내는데 다문화가정 애들이랑 가난한 아이들만 돈을 내지 않아서 그게 조금 쪽팔렸죠.(중략) 웬지 무시당하는 느낌 뭐 그런 감정 들었죠.”(참여자2)

“역사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임진왜란을 배우는데 친구들로부터 차갑고 불편한 시선을 느꼈죠. 수군거리고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거요.(중략) 저는 스스로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동네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참여자3)

“대학에 다니면서 다문화가정이라고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중략) 아직도 다문화라고 하면 특히 일본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느껴져요.(중략)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새아빠가 일본 사람이니까 주변 친구들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전처럼 외면할 것 같아서요. 근데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일본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지 그런 걱정도 해요.”(참여자5)

이러한 학교에서의 차별과 편견 경험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문화 배경을 주변에 감추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인식과 감수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교육해야 하는 학교에서조차 잘못된 다문화 인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 4.2.3. 다문화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비슷하고 모두 남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밝혀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진행되는 다문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고 반감도 가졌지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질감과 친숙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생계유지와 부족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학업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집에 방문하여 학업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관심을 보여준 학교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이 돼서 스스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초등학교 때 다문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들만 별도로 모아서 선생님 한 분과 견학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많이 알게 되었죠.(중략)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금방 친해졌어요.”(참여자1)

“중학교 때 다문화 학생들만 모아서 별도로 하는 다문화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다문화가정 동생, 형들과 친해졌죠.(중략) 환경이 비슷해서 공감대 때문에 빨리 친해졌던 거 같고 재미있었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할 말도 많았어요.”(참여자2)

“학교 전체적으로 다문화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중략) 근데 그거 받으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심 없던 애들도 늘리고.(중략) 저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살아 본 적도 없는 다문화 애들은 좀 불편하죠. 한국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중략) 대신 전체 교육 말고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온 애들한테는 필요한 거 같아요.(중략)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참여자3)

“초등학교 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학습을 봉사해줬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에 와서 숙제나 선행학습을 도와줬는데 좋았어요.(중략) 제 기억에 아빠는 바빠서 늦게 오고 엄마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저학년 때

준비물을 못 가져가거나 숙제를 못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니 좋았고 형들이나 누나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엄마도 좋아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서 애들을(다문화 가정 자녀) 도와줬어요. 도와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참여자4)

“학교 다닐 때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수시로 다문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중략)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받는 게 자연스럽게 좋은 거 같아요.”(참여자5)

하지만 일반 학생과 통합하여 다문화 교육 시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 외적으로 차이가 없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놀림의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통합 교육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거주 경험 없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자신들보다 중도입국자녀나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기관에서 통합하여 다문화 교육을 진행할 때, 민감한 청소년 시기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다문화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4.3.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바라는 한국 사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다문화사회를 위해 바라는 점을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진술하였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문화’라는 범주로 분리하는 것에 반발감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반발심과 태도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다문화라고 특혜를 주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참여자1)

“다문화하고 일반을 구분 짓는 용어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해요.(중략)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TV에서도 그냥 선을 긋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다문화라고 부르는 대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 자녀’라든지 뭐가 이런 게 더 괜찮은 거 같아요. 요즘 이혼이 흔한 것처럼 나중에 그냥 다문화라는 이름도, 구분 짓는 시각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4)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배우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특별한 취급하는 거 같기도 하고(중략) 다른 게 없이 평범한데 괜히 특이한 사람 만드는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5)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생각하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중 매체인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고정관념,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잘못된 인식, 다문화 특혜에 대한 오해와 반감 등 다양하게 범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방식도 제한하였다. 이러한 견해(opinion)들은 외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적 행위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에 표출이자, 분리와 배제에서 벗어나 온전한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로 해석된다.

## 5. 결론 및 제언

우리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 5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차별 경험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적응 과정에서 경험한 것과 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장 과정에서 가정환경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의 갈등과 다툼, 한국인 아버지의 폭력적 행동과 언어는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이혼 등 가족해체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님의 갈등 원인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한되었고, 한국인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장 환경의 원인 때문에 성인이 되어 외국인 어머니를 존경하고 지지(support)하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임과 동시에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었다. 온전히 한국인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외국인 부모 국가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분노를 표출하며 대응하였다.

다음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경험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의 이국적인 외모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을 경험했다. 외모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반응과 인식으로 외모로 인한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은 경험을 하였고,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인과 다르게 생기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만든 선입견과 편견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으로 차이가 없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문화 배경이 알려지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가난하고 취약계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학창 시절 경험한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학업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경험과 다문화 학생들끼리의 별도 만남은 동질감과 친숙함으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한국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다문화라는 범주로 자신들을 분류하고 구분 짓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는 외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차별을 경험한 것 때문이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고, 다문화 교육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사회에서 분리와 편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온전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논의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문화 이해 교육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 자료를 구축하고, 학교 등 단체 또는 기관의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는 강사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앞세워 강조하며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다양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환경과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구성원으로 역할하며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route)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지만, 생활 속에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선진국의 정책적 모델을 한국 문화에 대한 분석과 당사자들의 의견 없이 적용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인 그들의 피해 경험을 고려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5명으로 제한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 과정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관점에서 사회문제와 차별 경험을 분석한 것과 다문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외국인 어머니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가족 구성원으로서 오랜 시간 지켜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신념적 의견을 담은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사건과 다문화 인식을 분석한 우리의 연구 결과가 향후 올바른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의 연구 후속으로 앞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다문화 환경과 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서구권 외국인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용환(2022). 다문화 병사의 복무 여건 개선 방안,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쪽.
- 구분규(2015).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동북아문화연구〉 42, 13쪽.
- 김비환(2007).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319쪽.
- 김재훈·연구진·장현진·김민선(2022). 다문화가정 청년들의 차별 경험에 대한 합리적 질적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3(4), 842쪽, 852쪽.
- 김희재(2015).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쪽, 21쪽.
- 박시균·김송이·김지영·오영란·이주원·최은하·최지은(2021). 다문화·다문화가정·한국어 교육 8년간의 인식변화 연구. 집문당. 37쪽-39쪽.
- 송진영(2019).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문화연구〉 25(1), 702쪽, 718쪽.
- 안진숙(2023).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85쪽.
- 여성가족부(2021).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3쪽.
- 이동구(2017). 다문화 사회의 군 리더십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쪽, 16쪽.
- 이수민·양난미·이아라(2021).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777쪽.
- 조정숙(2023). 다문화가정 용어에 내재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 교육연구》 13, 176쪽, 181쪽, 189쪽, 207쪽, 209쪽.  
최대희(2018).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과 인종주의, 〈글로벌 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53쪽.  
통계청(2022).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인구동향과.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 필자 소개

성 명 고용환  
소 속 군산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생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전자우편 korn8405@gmail.com

성 명 박시균  
소 속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다문화학과 교수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전자우편 seegyoon@kunsan.ac.kr

## | Abstract

#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Korean Society -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 -

Ko, Yong-hwan · Park, See-gyo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analyze social problems and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experienced by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problems and phenomena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family environment, school, and social experien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ir mid-20s who grew up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d an unstable childhood due to parental conflicts, were teased for their different appearance during school years, and experienced discrimination because they wer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is experience of Korean social adaptation, identity confusion and victimization were latent in the process of adulthood, and strong feelings of compassion were felt for foreign mothers. The derived phenomenon refers to the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policies promoted so far,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osed to discrimination due to incorrect social perceptions.

**[Key words]**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families, married immigrant wome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qualitative research

투고일 2023. 10. 08 / 심사일 2023. 11. 07 / 게재확정일 2023. 11. 14

www.kci.go.kr